

도시농업 참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Pine II and Gilmore 이론과 Schmitt 이론의 결합을 중심으로

윤중환 (마이몰24, 대표)¹⁾ 정병규 (성결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²⁾

국문 요약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힐링 개념으로 도시농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2020년에는 1,848,000명이 도시농업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농업 참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연구의 이론적 토대는 Pine II and Gilmore의 체험경제이론과 Schmitt의 체험 이론이다. 독립변수는 Pine II and Gilmore의 체험경제이론 4가지 요소 즉 교육적, 오락적, 일탈적, 심미적 체험과 Schmitt의 이론을 활용하여 재분류한 관계적 체험으로 총 5개의 변인을 설정하였다. 이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 도시농업 참여 의도 간에는 흥미를 매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실증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 중 유의한 314부를 바탕으로 통계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정하였다. 먼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영향 관계 검정 결과 교육적, 오락적, 일탈적 체험은 도시농업 참여 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영향력의 크기는 오락적 체험, 일탈적 체험, 교육적 체험 순이었다. 심미적 체험과 관계적 체험은 유의한 영향 관계가 검정되지 않았다. 한편, 본 연구 결과 매개변수로 도입된 흥미는 오락적, 일탈적, 심미적 체험과 도시농업 참여 의도 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적 체험 및 관계적 체험과 도시농업 참여 의도 간에는 흥미의 매개 효과가 검정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도시농업 참여에 관해 힐링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체험 이론의 대표적인 Pine II and Gilmore 이론과 Schmitt 이론을 결합하여 분석함으로써 도시농업 활동 참여에 미치는 요인을 이론적인 틀을 바탕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미가 있다. 또한 실무적으로 오락적 체험과 일탈적 체험이 도시농업 참여 의사결정에 중요 영향 변수임을 밝힘으로써 도시농업에 관하여 힐링 개념 접근이 방향적으로 맞다는 부분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었다.

■ 중심어: 도시농업, 참여 의도, 교육적 체험, 오락적 체험, 일탈적 체험, 심미적 체험, 관계적 체험, 흥미

I. 서론

디지털 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아날로그적인 형태인 도시농업이 힐링의 개념으로 최근 연구자 및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도시농업에 관한 관심은 도시화 문제, 기후변화, 먹거리의 안전성 등에 관한 해결책의 하나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이원석, 2017). 도시농업은 도시생태계 향상 및 공동체를 형성하고 도시민과 농업의 재연결로부터 일자리 창출과 소득 창출에 기여 해오고 있다. 이 같은 긍정적 혜택을 가진 도시농업은 도시화로

1)제1저자 : 마이몰24, 대표, whanflower@naver.com

2)교신저자 : 성결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gljoseph@sungkyul.ac.kr

· 투고일: 2022-08-08 · 수정일: 2022-09-02 · 게재확정일: 2022-09-09

인해 발생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여러 도시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한 먹거리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스트레스 해소 및 작물 재배를 통한 힐링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이동관, 조세환, 2016). 도시농업은 정서적 안정, 새로운 경험, 취미 등 여가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즉, 도시 생활에서 지친 심신의 회복, 즐거움, 나누는 행복 등 다차원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여가활동이 중요 해지고 있기 때문이다(Dunlap et al., 2020). 도시농업은 공간적으로 도시라는 부분과 그 주체가 도시민이며, 용도는 생산 활동에서부터 여가 까지 다양하다. 또한 텃밭에서부터 식물공장까지 방식도 다양하다.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제 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Taylor, 2014 ; 이원석, 2017).

도시농업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학술적인 차원에서 3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기술과 R&D 측면의 연구이다. 최근 스마트팜 연구와 더불어 좁은 공간 혹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식물공장과 같은 부분에서의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주로 공학 내지 엔지니어링 관점에서의 연구들이다(여옥현, 2021). 이 분야의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제도 및 정책적 차원의 연구이다. 행정학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농업의 정책 및 제도적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 현상 분석 및 진단을 통한 대안 제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이동관, 2018). 또한 정책적인 차원에서 도시농업 효용성 증대 방안에 대한 제시가 있었으나 도시민의 선호도에 따른 요인에 근거하지 않고 형식적인 제안에 머무는 한계가 있었다(이동관, 조세환, 2016).

셋째, 도시농업 소비자 측면의 연구이다. 최근 이 분야의 연구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도시농업 운영관리의 인식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김혜란 외, 2018),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연구(김정식, 한미영, 2018),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평가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이원석, 2017) 등이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힐링 개념으로 도시농업이 주목을 받고 있고 2020년 1,848,000명이 도시농업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렇게 급속도로 증대되고 있는 도시농업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연구의 이론적 토대는 Pine II and Gilmore의 체험경제이론과 Schmitt의 체험 이론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농업을 체험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체험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을 접목하여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렇게 설정된 연구 모형을 토대로 실증 분석으로 검증하고자 했다. 둘째, 체험 분야에 있어서 흥미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이에 흥미가 미치는 영향 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다. 셋째, 이러한 실증 분석을 통해 도시농업을 체험이라는 관점으로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활성화를 위해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도시농업

일반적으로 도시농업(urban agriculture)이라 함은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농업 활동을 뜻하는 것이다. 최근 도시농업 범위가 공간적으로나 방법론 측면에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공간의 범위가 기존의 도시뿐만 아니라 근교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농업 방식에 추가하여 빌딩형 농장이나 식물 공장(plant factory) 등 IoT 기술을 활용한 농업도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다(이동관, 조세환, 2016). Tiraieyari and Krauss(2018)는 도시 내 혹은 근교에서 생산물을 재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공 및 유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도시농업을 정의하였다. 장동민(2017)은 28개의 국내외 레퍼런스를 분석한 결과 도시농업 유형을 4개로 분류하였다. 첫째, 도시민의 자급자족, 취미활동 및 농업인의 상업적인 농업 형태. 둘째, 농업의 형태로서 도시 행정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지속 가능한 다원적 활동. 셋째, 도시와 인근지역에서 생태적이고 유기적인 방법으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활동. 넷째, 도시화 과정에서 농업을 보존하고 산업화 요소로 생산을 위해 보존하는 농업을 도시농업이라 정의하고 있다.

제2차 도시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기존의 개인, 경작, 생산 중심의 도시농업에서 점차 지속 가능하며 공공성을 실천할 수 있는 다원적 공간으로써의 도시농업으로 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김소은 외, 2019). 도시농업 활성화의 시작은 활동 주체인 도시민의 이해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제는 도시농업의 주체 내지 소비자 관점에서의 연구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최근에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농업 참여 소비자 혹은 참여할 잠재적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도시농업 참여요인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다. 해외 연구사례로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도시농업 참여에 관한 연구(Chenarides et al., 2021), 싱가포르시민의 도시농업참여에 관한 연구(Low, 2020), 여가활동으로써의 도시농업참여(Dunlap et al., 2020) 등을 들 수 있다. 국내 연구사례로 중고령자 대상으로 도시농업참여 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장흥중, 2021), 도심지 유희공간의 재인식(김민지, 2020), 자기효능감이 도시농업 참여 수준에 미치는 영향(임재호 외, 2020), 도시농업의 가치분석과 전파에 대한 연구(김곡미, 안지아, 2019), 인문프로그램을 적용한 도시텃밭(채영 외, 2019),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김정식, 한미영, 2018), 소득수준과 도시농업 참여(홍인경 외, 2018)에 관한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 도시농업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에 관한 연구는 매우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어떠한 이론적인 토대에서 이루어졌다고 하기보다 다양한 요인들을 조합해서 실증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농업을 체험이라는 관점에서 체험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2 Pine II and Gilmore의 체험경제 이론

Pine II and Gilmore의 체험경제이론은 매우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 이론적인 토대가 되고 있다. 체험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4가지 요소(교육, 일탈, 오락, 심미)로 제시하고 4가지 체험 요소를 체험 상품개발에 반영해야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체험 상품이 될 것이라 하였다(Pine II and Gilmore, 1998). 대부분의 체험활동이 네 가지의 체험영역이 가지는 체험적 특성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에 무게를 두고 실행이 되었지만, 현재의 활동은 네 가지 영역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모든 체험영역을 아우르는 체험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첫째, 교육적 체험은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체험적 특성을 가진다. 참여자는 체험적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교육이 된다. 그러므로 무언가를 배웠다고 생각하게 되고 스스로 교육 효과를 가졌다는 감정을 가지게 되며 교육을 통해 참여자는 만족감을 얻게 된다. 원하는 정보를 알기 위한 참여자의 적극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교육적 체험 요소는 소비자로서 하여 즐거움에 대한 감정을 가져오게 한다. 교육적 체험은 개인들의 적극적이고 많은 참여가 개입되어 있다. 유익한 정보전달과 지식 그리고 능력을 향상하는 이벤트는 정신과 육체의 자발적,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교육적 체험은 적극적 참여와 흡수 영역이 교차하는 것으로 과정을 통하여 체험자가 유익한 정보, 지식 또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둘째, 일탈적 체험(escapist experience)이다. 일상의 지루함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색다른 경험을 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탈적 체험은 관광 분야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며 연구가 되는 동기 중의 하나이다. 체험에 참여한 주체가 느끼는 체험적 특성은 참여자들이 현실에서 벗어난 해방감을 가질 수 있으며 일탈을 통해 색다른 신비감을 체험할 수 있다(Pine II and Gilmore, 1998). 일탈적 체험은 적극적 참여와 몰입 영역이 교차하는 것이며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인이 어떤 행위(카지노, 가상현실, 채팅 등)에 완벽하게 몰입된 상태에서 고달픈 현실과 지루한 일상 그리고 번거로운 갈등에서 벗어나 도피하는 체험을 말한다.

셋째, 오락적 체험이다. 오락적 체험은 흥미 있고 호소력이 있는 상태의 체험을 말한다. 감각기관을 통해 즐거움과 재미를 체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체험적 특성은 구매자의 소극적인 참여와 구매자를 몰입하게 하는 환경적인 설비 수준이 낮은 영역이다(Pine II and Gilmore, 1998). 체험경제요인 중 가장 오래되었고 확산이 많이 되어있는 형태의 체험이면서 참여자가 관심을 가지는 즐거움을 제공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체험요인이다.

넷째, 심미적 체험이다. 심미적 체험(aesthetic experience)의 특성은 참여자가 행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장

소적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참여자들의 소극적인 참여가 체험영역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심미적 체험의 특성은 자연적인 체험을 하거나, 열대우림 속에 꾸며진 식당에서 식사할 때처럼 인공적인 체험을 할 때 생길 수 있다(Pine II and Gilmore, 1998). 심미적 체험영역에서 이벤트나 환경에 몰입하는 경우, 소비자는 본인 스스로 그러한 이벤트와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그 장소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의 즐거움을 느낀다. 체험경제이론을 적용한 해외사례로 Zhang et al. (2021)은 예술공연을 보기 위해 체험 여행을 가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예술공연 체험에서 여행과 관련하여 참여 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교육적 요인, 일탈적 요인, 오락적 요인, 심미적 요인 중에서 교육적 요인과 일탈적 요인이 유의한 영향 관계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ai et al.(2021)은 전통음식 체험과 관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구전효과(word of mouth effect)가 음식 체험 장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일탈적 요인과 오락적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ine II and Gilmore의 이론적 틀을 토대로 척도를 개발한 Oh et al.(2007)의 척도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탈적, 교육적, 심미적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om Dieck et al. (2018)은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과학체험 축제의 참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체험경제의 4가지 요소 중 교육적, 일탈적, 오락적 요인이 참여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ong et al.(2015)은 템플스테이 참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연구 결과 교육적 요인, 일탈적 요인, 심미적 요인이 템플스테이 참여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체험경제이론을 적용한 선행연구에 관한 국내 연구사례는 방문객의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 분석한 연구(유근준, 이혁진, 2014), 문화관광 축제의 체험적인 요소가 브랜드 이미지, 지각된 품질, 그리고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구(김혜지 외, 2016), 레저 승마 활동의 체험경제가 레저 승마자의 행동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를 미치는가를 분석한 연구(권연택, 신진호, 2018), 복합리조트 이용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체험 요소를 분석한 연구(임재희, 2019),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체험경제 유형을 집단주의-개인주의, 맥락적-비맥락적, 예방중심-촉진중심인 세 가지 프레임으로 제시하고 문화 차이에 따라 호스피탈리티와 관광 체험경제 차이의 가능성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논의한 연구가 있다(장서희, 2019). 패션산업에 나타난 체험마케팅의 유형을 분석한 연구(김장현, 김영삼, 2020), 그리고 무인 로봇 서비스에 따른 체험경제 요인이 공항 이용 고객의 만족, 공항 이미지,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다(고민환, 김미영, 2020). 선행연구를 통해 체험경제이론을 살펴본 결과, 관광 분야의 체험이 가장 많고 패션, 무인 로봇체험, 레저승마 등 다양하다. 대체로 이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체험 경제이론이 실증적인 분석에 있어서 매우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은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 관계적 요소가 혼합되어 이루어지는데 Pine II and Gilmore의 이론은 개인적 요소인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 부분 위주로 구성이 되어있는 한계점 역시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체험 이론의 또 다른 한 축인 Schmitt의 이론을 접목하고자 한다.

2.3 Schmitt의 체험 이론

Schmitt(1999)는 체험의 요소를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인지적 요소이다. 인지적 체험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호기심으로 인한 인지적 반응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정한 방향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전파하여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다.

둘째, 감각적 요소이다. 감각적 체험은 후각과 촉각을 통하여 소비자의 감정적인 상태와 분위기에 영향을 주기도 하며 브랜드를 이미지화하여 인지하고 회상함으로써 소비자는 신체적, 심리적 상호작용을 하고 눈으로 기억하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기억하게 한다. 또한 오감을 통하여 감각적 체험을 창조한다.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등 5가지 감각에 호소한다. 그리고 감각적 체험은 소비자의 본능에 가까운 반응을 유도하려는 기법으

로 기능적이며 미학적 요소의 조화를 필요로 한다.

셋째, 감성적 요소이다. 감성적 체험은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소비자가 좋아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며, 체험객의 긍정적인 감정을 지속하기 위해 그들이 좋아하는 감성 자극물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감성과 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소비 시점이나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되는 동안 감성적인 전략 중 일부로 감성적 자극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감성적 체험은 사람들의 미세한 감정에서 시작하여 영향을 줄 수 있는 감정에 도달하도록 감성에 소구하는 체험이다.

넷째, 관계적 요소이다. 관계적 체험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문화나 개인의 자아를 경험하게 하는 방법이다. 타인과의 관계 형성 체험을 통해 자아 향상 욕구 및 경험을 증진하게 하는 체험이다. 관계는 개인적 체험활동을 증가시키고, 사적인 차원을 넘어 개인으로 하여 이상적인 자아, 타인, 문화 등과 연결을 시켜 고객으로 하여 자기 향상 욕구를 가지게 한다(Schmitt, 1999).

다섯째, 행동적 요소이다. 행동은 감성, 감각, 인식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다. 이는 다양한 계층의 소비자들에게 새롭고 이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한다. 그들의 행동 패턴과 생활양식을 변화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한다. 행동적 체험은 개별적으로 발생하게 되지만, 다수의 경우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발생한다.

Schmitt 체험 이론의 체험요인에 관련한 연구에서 체험요인 5가지 모두를 검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실제적인 영향 관계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측정에 있어 감각과 감성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Schmitt도 관계적 요인은 인지, 감각, 감성, 행동 등이 모두 포함된 개념이며 특히 행동과 구분이 쉽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요인을 분석할 때 잘 묶이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Schmitt의 5대 체험요인을 재분류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 확인된 내용 중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재분류 요인은 인지적 요인, 정서적 요인, 관계적(사회적)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Schmitt의 5가지 요인 가운데 인지(think)를 인지적 체험요인으로, 감각(sense)과 감성(feel)을 묶어 정서적 체험요인으로, 행동(act)과 관계(relate)를 묶어 관계적 체험요인으로 재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 Pine II and Gilmore의 이론과 중복 개연성이 있는 인지적 체험과 정서적 체험을 제외하고 관계적 체험을 추가 연구변수로 채택하였다.

Table 1. Reclassification of Schmitt's Experience Factors

| 연구자 | 연구 분야 | 재분류 요인 |
|--------------------------|-------------------|------------------------|
| 김문명 외(2014) | 브랜드 체험 | 인지 체험, 감성 체험, 행동 체험 |
| 이경렬, 이경아(2016) | on-off line 체험 사례 | 인지적 체험, 정서적 체험, 사회적 체험 |
| Tussyadiah et al.,(2018) | VR 체험관광 | 인지 체험, 감성 체험, 행동 체험 |
| 이상인(2019) | 구매 의도 | 인지적 체험, 정서적 체험, 관계적 체험 |
| 김유정(2019) | 만족도 | 인지적 경험, 감성적 경험, 사회적 경험 |
| 최양애(2020) | 6차산업 체험 | 인지적 체험, 정서적 체험, 사회적 체험 |

출처 : 선행연구를 통한 연구자 정리

2.4. 흥미의 매개 효과

흥미는 사람으로 하여 어떤 새로운 영역에 대해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더 알고 싶게 만들어주고, 더 큰 성취를 지향하도록 만들어준다. 실제로도 어떤 대상에 흥미를 갖게 되면 각성 수준으로 집중력과 학업성취가 향상되고 이해력과 기억력이 활성화된다는 연구들이 존재한다(Schiefele and Schaffner, 2015). 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내적 동기인 흥미를 증가시켜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참여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자발적 또는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다면 도시농업 참여를 보다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체험 관점의 도시농업에 있어서 흥미는 참여자의 직접적이고 선택적인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표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흥미는 도시농업 참여를 결정하고, 행동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흥미는 성취동기, 목표설정, 참여 의도 등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Hidi,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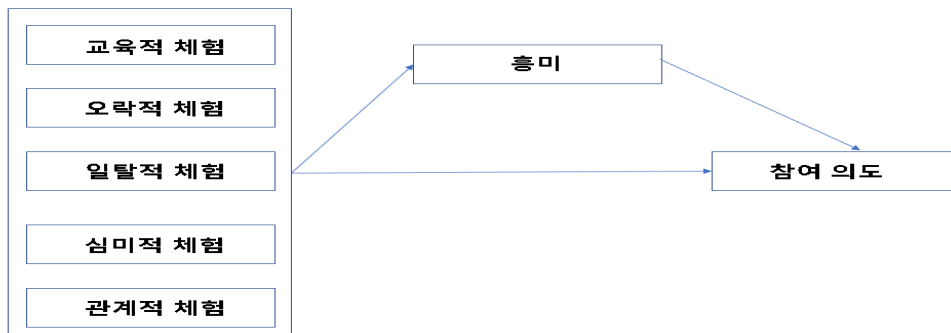
본 연구가 도시농업 참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것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흥미는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흥미는 독립변수, 매개변수, 조절변수로도 활용되고 매개변수로도 활용되고 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흥미를 매개변수로 사용한 선행연구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Masumoto et al.(2020)은 광고 메시지의 전달 효과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연구 결과 다양한 광고 메시지는 흥미를 매개로 하여 전달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auff and Nilsson(2020)은 전공선택에 있어서 통계 관련 과목의 흥미를 매개로 해서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흥미는 선행변수와 전공선택 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Zhao et al.(2019)은 초등학생들의 독서 몰입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선행변수와 독서 몰입도 간에 흥미가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유의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ögheim and Reber(2017)는 남녀 간 교과 만족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 경우 흥미가 매개 역할을 하는지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흥미는 선행변수와 교과 만족도 사이에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사례에서는 최미순 외(2019)의 체육계열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각하는 영어 학습 동기 유형에 따른 영어학습 만족도 연구에서 참여도, 자신감과 함께 흥미도를 매개 효과 분석에 활용하였다. 남지현, 홍아정(2019)은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학습지속 의향에 미치는 선행요인을 확인하고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연구 결과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사회적 지지와 학습 지속 의향의 관계에서 상황적 흥미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리고 유아의 놀이 상황 가운데 어머니의 지지 행동과 유아의 인지적 유연성의 관계 연구에서 유아의 흥미가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정한 결과 매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안서희, 정윤경, 2019).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살펴보면 학습이나 놀이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흥미의 매개 효과가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제품의 선호도에 있어 흥미의 매개 효과를 연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흥미에 관해 도시농업 참여 분야로 확대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했다.

III. 연구 설계

3.1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 활용된 연구 모형은 <Fig 1>과 같다. 연구 모형에서 보는 것과 같이 독립변수로는 Pine II and Gilmore의 교육적 체험, 오락적 체험, 일탈적 체험, 심미적 체험과 함께 Schmitt의 관계적 체험을 설정하였다. 매개 변수로는 흥미를 종속변수로는 참여 의도를 각각 설정하였다.



<Fig 1> 연구 모형

3.2 가설 설정

Pine II and Gilmore의 이론을 실증 분석한 연구들에 의하면 교육적 체험 요소(Zhang et al., 2021 ; 고민환, 김미영, 2020 ; 김장현, 김영삼, 2020), 오락적 체험 요소(Lai et al., 2021; tom Dieck et al., 2018), 일탈적 체험 요소(Zhang et al., 2021 ; 고민환, 김미영, 2020 ; 김장현, 김영삼, 2020), 심미적 체험 요소(Oh et al., 2007 ; Song et al., 2015)가 참여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Schmitt의 이론을 응용한 베이커리 카페 대상 연구에서 Chuang and Hu(2017)는 고객이 방문하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서 관계적 요인이 방문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Oktriana(2019)는 고객의 체험 요소가 상점을 재방문하고자 하는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 관계적 요인이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모형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1-1 도시농업의 교육적 체험 요소는 도시농업 참여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1-2 도시농업의 오락적 체험 요소는 도시농업 참여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1-3 도시농업의 일탈적 체험 요소는 도시농업 참여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1-4 도시농업의 심미적 체험 요소는 도시농업 참여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1-5 도시농업의 관계적 체험 요소는 도시농업 참여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체험에 있어서 흥미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Masumoto et al.(2020)은 광고 메시지의 전달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 다양한 광고 메시지는 흥미를 매개로 하여 전달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auff and Nilsson(2020)은 전공선택에 있어서 통계 관련 과목의 흥미를 매개로 해서 분석한 결과 흥미는 선행변수와 전공선택 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Zhao et al.(2019)는 초등학교생들의 독서 몰입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선행변수와 독서 몰입도 간에 흥미가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에서 유의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모형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2-1 흥미는 도시농업의 교육적 체험 요소와 도시농업 참여 의도 간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 가설2-2 흥미는 도시농업의 오락적 체험 요소와 도시농업 참여 의도 간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 가설2-3 흥미는 도시농업의 일탈적 체험 요소와 도시농업 참여 의도 간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 가설2-4 흥미는 도시농업의 심미적 체험 요소와 도시농업 참여 의도 간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2-5 흥미는 도시농업의 관계적 체험 요소와 도시농업 참여 의도 간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3.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자료의 수집은 도시농업 잠재적 참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설문 조사는 2022년 1월 15일부터 1개월간 실시하였다. 이 중 유효한 314부를 바탕으로 Process Macro 4.0 및 SPSS 24를 활용하여 실증 분석을 하였다. 특히 매개효과는 Process Macro 4.0의 model No.4를 활용하여 검정하였다. 이때 Bootstrapping을 10,000회 실시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의 모든 문항을 응답자의 자기보고 방식으로 응답을 했으므로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설문 조사 시 설문 항목에 따른 대상자 분리 혹은 조사 시점의 분리 등을 고려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동일방법편의(CMB)를 완전히 제거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후 통계적인 방법으로 동일방법편의 여부를 검정하는 방법을 택했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방법편의를 검정하기 위해 Harman의 single factor test를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모든 변수의 문항을 포함하는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설명력이 가장 높은 요인 1개가 총 설명력의 50%이상을 차지하지 않으면 동일방법편의로 인한 왜곡현상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Podsakoff et al., 2003). 본 연구의 경우 설명력이 가장 높은 요인의 설명력이 29.171%로 절대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 자료는 동일방법편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고 판단되었다.

3.4 표본의 특성

응답자의 특성은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성 59.6%, 여성 40.4%이었다. 연령은 40대, 50대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두 집단이 전체의 66.3%를 차지하였다. 학력은 대졸이 60.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 | | Frequency | Percent |
|------|-----|-----------|---------|
| 성별 | 남성 | 187 | 59.6 |
| | 여성 | 127 | 40.4 |
| | 합계 | 314 | 100.0 |
| 연령 | 20대 | 26 | 8.3 |
| | 30대 | 39 | 12.4 |
| | 40대 | 111 | 35.4 |
| | 50대 | 97 | 30.9 |
| | 60대 | 41 | 13.1 |
| | 합계 | 314 | 100.0 |
| | 학력 | 고졸 | 37 |
| 대졸 | 189 | 60.2 | |
| 대학원졸 | 88 | 28.0 | |
| 합계 | 314 | 100.0 | |

IV. 연구 결과

4.1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정 결과

측정변수의 정확을 위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정했다. 타당도는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하였으며 신뢰도 검정은 Cronbach의 α 로 측정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varimax 방법을 사용하였다. 최종 연구변수의 선택은 요인적재치 .6 이상으로 하였다.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 모형이 적합한지 검정을 하였다. 이를 위해 KMO와 Bartlett 검정을 하였다. 그 결과 KMO는 .957로 나타났다. Bartlett의 경우 6863.316으로 유의확률 .000이었다. 설명된 총분산은 85.464%였다. 기준값인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모형과 동일하게 요인들이 잘 묶임을 <Table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측정항목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Cronbach의 α 계수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락적 체험 .848, 참여 의도 .966이었다. 나머지 요인들은 이들 사이로 나타났다. Cronbach's α 값이 .6을 넘을 경우 측정요인의 신뢰도는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Table 3.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 Factors | Variables | Factor Loading | Total Variance % (Cumulative) | Cronbach's α |
|---------|-----------|----------------|----------------------------------|---------------------|
| 참여 의도 | INT4 | .856 | 21.880 | .966 |
| | INT2 | .848 | | |
| | INT3 | .839 | | |
| | INT1 | .818 | | |
| 심미적 체험 | AETH4 | .750 | 38.440 | .908 |
| | AETH3 | .737 | | |
| | AETH1 | .724 | | |
| | AETH2 | .623 | | |
| 일탈적 체험 | ESC2 | .744 | 54.925 | .933 |
| | ESC3 | .737 | | |
| | ESC1 | .717 | | |
| | ESC4 | .642 | | |
| 관계적 체험 | REL2 | .735 | 67.449 | .901 |
| | REL1 | .695 | | |
| | REL3 | .659 | | |
| 교육적 체험 | EDU2 | .729 | 78.605 | .900 |
| | EDU3 | .690 | | |
| | EDU1 | .687 | | |
| 오락적 체험 | ENT3 | .692 | 85.464 | .848 |
| | ENT4 | .607 | | |

Kaiser-Meyer-Olkin : .957 Bartlett Test : χ^2 6863.316(P=.000)

4.2 상관관계 분석 결과

<Table 4>는 요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 결과이다. 오락적 체험과 흥미 간 상관관계가 .790으로 가장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나머지 요인 간 상관관계는 .790보다 낮았다.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상관계수가 .8이상을 넘는 것이 없으므로 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조철호, 2017).

Table 4.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 | 교육적 체험 | 오락적 체험 | 일탈적 체험 | 심미적 체험 | 관계적 체험 | 흥미 | 참여 의도 |
|--------|--------|--------|--------|--------|--------|--------|-------|
| 교육적 체험 | 1 | | | | | | |
| 오락적 체험 | .702** | 1 | | | | | |
| 일탈적 체험 | .742** | .784** | 1 | | | | |
| 심미적 체험 | .755** | .764** | .745** | 1 | | | |
| 관계적 체험 | .608** | .710** | .747** | .783** | 1 | | |
| 흥미 | .708** | .790** | .775** | .741** | .687** | 1 | |
| 참여 의도 | .669** | .743** | .732** | .649** | .619** | .771** | 1 |

**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양측)

4.3 인과관계 가설 검정 결과

변수의 정화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 연구변수를 바탕으로 다중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인과관계 검정하였다. 모형 통계량을 살펴보면 R값은 .790, 수정된 R²은 61.9%로 나타났다. F값은 102.586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VIF값이 모두 10 미만으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회귀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는 인과관계 검정 결과이다. 교육적 체험은 $\beta=.210$, $p<.01$ 로 도시농업 참여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가설1-1 도시농업의 교육적 체험 요소는 도시농업 참여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채택되었다. 오락적 체험은 $\beta=.390$, $p<.001$ 로 도시농업 참여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가설1-2 도시농업의 오락적 체험 요소는 도시농업 참여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채택되었다. 일탈적 체험은 $\beta=.314$, $p<.001$ 로 도시농업 참여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가설1-3 도시농업의 일탈적 체험 요소는 도시농업 참여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채택되었다. 심미적 체험은 $\beta=.019$, $p > .05$ 로 도시농업 참여 의도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검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1-4 도시농업의 심미적 체험 요소는 도시농업 참여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각되었다.

관계적 체험은 $\beta=.077$, $p > .05$ 로 도시농업 참여 의도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검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1-5 도시농업의 관계적 체험 요소는 도시농업 참여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각되었다

도시농업 참여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 관계의 크기는 오락적 체험($\beta=.390$) > 일탈적 체험($\beta=.314$) > 교육적 체험($\beta=.210$) 순이었다.

Table 5. Results of Hypotheses Testing

| | Unstandardized Coefficient | | Standardized Coefficient | t | P | VIF | Results |
|------------|----------------------------------------------------------------------------------------|------|--------------------------|-------|------|-------|---------------|
| | B | S.E | β | | | | |
| 상수 | .421 | .194 | | 2.166 | .031 | | |
| 교육적 체험 | .256 | .079 | .210 | 3.225 | .001 | 3.490 | supported |
| 오락적 체험 | .463 | .075 | .390 | 6.206 | .000 | 3.248 | supported |
| 일탈적 체험 | .356 | .073 | .314 | 4.847 | .000 | 3.442 | supported |
| 심미적 체험 | .024 | .083 | .019 | .287 | .774 | 3.569 | not supported |
| 관계적 체험 | .096 | .084 | .077 | 1.137 | .256 | 3.806 | not supported |
| Statistics | R : .790, R ² : .625, Adjusted R ² : .619, F : 102.586(P = .000) | | | | | | |

4.4 매개효과 가설 검정 결과

본 연구에서는 Process Macro 4.0을 사용하여 매개 효과를 분석하였다. 10,000회에 걸친 Bootstrapping 방식을 활용하였다. 이 방식은 측정된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한다는 가정을 하지 않고 신뢰 구간을 추정한다. 신뢰구간의 상한선(ULCI)과 하한선(LLCI)으로 설정하고,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 0이 들어가는 여부로 판단한다. 만약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 0이 들어간다면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 0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유의한 것으로 본다(Hayes, 2022). <Table 6>은 흥미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교육적 체험이 참여 의도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흥미의 간접효과는 .120이었다. LLCI가 -.013, ULCI가 .276으로 하한선과 상한선 사이에 0이 들어가 있다. 따라서 가설2-1 흥미는 도시농업의 교육적 체험 요소와 도시농업 참여 의도 간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각되었다.

오락적 체험이 참여 의도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흥미의 간접효과는 .306이었다. LLCI가 .190, ULCI가 .425로 하한선과 상한선 사이에 0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2-2 흥미는 도시농업의 오락적 체험 요소와 도시농업 참여 의도 간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채택되었다.

일탈적 체험이 참여 의도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흥미의 간접효과는 .230이었다. LLCI가 .105, ULCI가 .370으로 하한선과 상한선 사이에 0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2-3 흥미는 도시농업의 일탈적 체험 요소와 도시농업 참여 의도 간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채택되었다.

심미적 체험이 참여 의도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흥미의 간접효과는 .158이었다. LLCI가 .018, ULCI가 .282로 하한선과 상한선 사이에 0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2-4 흥미는 도시농업의 일탈적 체험 요소와 도시농업 참여 의도 간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채택되었다.

관계적 체험이 참여 의도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흥미의 간접효과는 .020이었다. LLCI가 -.142, ULCI가 .096으로 하한선과 상한선 사이에 0이 들어가 있다. 따라서 가설2-5 흥미는 도시농업의 관계적 체험 요소와 도시농업 참여 의도 간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각되었다

Table 6. Results of Mediating Effect of Interest

| Path | | coeff | t | LLCL | ULCL | Results |
|-----------------------|------|-------|--------|-------|-------|---------------|
| 교육적 체험 -> 참여 의도 | 총효과 | .256 | 3.225 | .100 | .412 | not supported |
| | 직접효과 | .136 | 2.200 | .014 | .258 | |
| | 간접효과 | .120 | - | -.013 | .276 | |
| 오락적 체험 -> 참여 의도 | 총효과 | .463 | 6.206 | .316 | .610 | supported |
| | 직접효과 | .157 | 2.559 | .036 | .278 | |
| | 간접효과 | .306 | - | .190 | .425 | |
| 일탈적 체험 -> 참여 의도 | 총효과 | .356 | 4.847 | .212 | .501 | supported |
| | 직접효과 | .126 | 2.138 | .010 | .242 | |
| | 간접효과 | .230 | - | .105 | .370 | |
| 심미적 체험 -> 참여 의도 | 총효과 | .024 | .287 | -.139 | .187 | supported |
| | 직접효과 | -.134 | -2.062 | -.262 | -.006 | |
| | 간접효과 | .158 | - | .018 | .282 | |
| 관계적 체험 -> 참여 의도 | 총효과 | .096 | 1.137 | -.070 | .261 | not supported |
| | 직접효과 | .076 | 1.169 | -.052 | .204 | |
| | 간접효과 | .020 | - | -.142 | .096 | |

4.5 논의

실증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농업 참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인과관계 가설 검증에서 Pine II and Gilmore의 교육적 체험, 오락적 체험, 일탈적 체험은 도시농업 참여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심미적 체험과 Schmitt의 관계적 체험은 도시농업 참여 의도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검증되지 않았다. 오락적 체험과 일탈적 체험이 유의한 영향 관계를 나타낸 것은 도시농업이 단순한 생산지향적인 활동을 넘어 도시인의 지친 심신을 달래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도시농업을 하는 과정에서 재미있고 그러면서도 잠시나마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힐링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 부각된 현상으로 보인다. 교육적 체험 요소의 경우 자녀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이 확연히 구분될 것으로 사료된다. 자녀들에게 자연과 접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함으로써 정서 함양 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모의 의도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심미적 체험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도시농업의 장소들이 우리가 여행 등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심미적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흥미로운 사실 중의 하나가 관계적 체험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도 있겠지만 개인화의 추세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이제 도시농업도 집단적으로 무엇을 하는 시대는 저물고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집단적인 차원보다는 개인적인 힐링 개념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으로 추론된다.

둘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영향력의 크기가 오락적 체험, 일탈적 체험, 교육적 체험 순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은퇴 후의 취미생활로 도시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교육적 체험의 요소가 약화 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오락적 체험요소가 강하게 부각 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디지털의 극대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아날로그를 선호하는 경향들이 갈수록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아날로그적 체험의 한 형태가 도시농업이기에 오락적 체험, 일탈적 체험요인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흥미의 매개효과이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심미적 체험이 직접적으로 도시농업 참여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흥미’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도시농업에서 심미적인 요소를 추구하기는 쉽지 않지만 ‘흥미’가 있다면 이것 역시 유의하게 도시농업 참여 의도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V. 결론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힐링 개념으로 도시농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2020년에는 1,848,000명이 도시농업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렇게 급속도로 증대되고 있는 도시농업 활동 참여에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연구의 이론적 토대는 Pine II and Gilmore의 체험경제이론과 Schmitt의 체험 이론이다. 독립변수는 Pine II and Gilmore의 체험경제이론 4가지 요소 즉 교육적, 오락적, 일탈적, 심미적 체험과 Schmitt의 이론을 활용하여 재분류한 관계적 체험으로 총 5개의 변인을 설정하였다. 이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 도시농업 참여 의도 간에는 흥미를 매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설정된 연구 모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 중 유의한 314부를 바탕으로 통계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정하였다.

실증 분석에 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영향 관계 검정 결과 교육적 체험, 오락적 체험, 일탈적 체험은 도시농업 참여 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영향력의 크기는 오락적 체험, 일탈적 체험, 교육적 체험 순이었다. 심미적 체험과 관계적 체험 간 유의한 영향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본 연구 결과 매개변수로 도입된 흥미는 오락적 체험, 일탈적 체험, 심미적 체험과 도시농업 참여 의도 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적 체험, 관계적 체험과 도시농업 참여 의도 간에는 흥미의 매개 효과가 검정되지 않았다.

5.1 시사점

본 연구는 도시농업 참여를 힐링의 개념에서 접근하면서 체험 이론의 대표적인 Pine II and Gilmore 이론과 Schmitt 이론을 결합하여 분석함으로써 도시농업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론적인 틀을 바탕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미가 있었다. 또한 실무적으로 오락적 체험과 일탈적 체험이 도시농업 참여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 변수를 밝힘으로써 도시농업을 힐링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방향적으로는 맞다는 부분을 제시한 것이 의미가 있었다.

학술적으로는 첫째, 도시농업에 대한 소비자 관점에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고 그나마 연구된 것들도 어떤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연구자의 임의성이 강하게 개입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고자 체험 이론의 대표인 Pine II and Gilmore 이론과 Schmitt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이들의 이론이 도시농업 활동 참여 의도를 설명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하였다. 도시농업 분야로 활용의 범위를 확장했다는데 학술적인 의의가 있다. 둘째, 많은 연구에서 인과관계 분석을 하는데 이들 인과관계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이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영향 관계를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오락적 체험요인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향후 보다 많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결과는 학술적인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흥미의 매개 효과에 관한 검정이다. 심미적 체험의 경우 직

접적으로는 도시농업 참여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흥미를 매개로 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의 매개 효과에 관해서 기존의 연구는 주로 교육적인 분야에 치중되어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범위를 확대했다는 측면에서 학술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첫째, 도시농업 활동 참여에 미치는 요인 중에서 오락적 체험과 일탈적 체험이 가장 강력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도시농업에 관련된 정책이나 교육에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흥미의 요소 역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점도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5.2 연구 한계 및 향후 방향

본 연구의 학술적 실무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첫째, 본 연구가 코로나 팬데믹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강력한 외생 변수가 작용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연구로 연구 결과의 해석에서 이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적 체험 요소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 분석을 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REFERENCE

- 고민환, 김미영(2020), “인천공항 무인로봇의 체험경제 요인이 고객 만족, 공항 이미지,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 Pine과 Gilmore의 체험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항공경영학회지*, 18(2), 3-21.
- 권연택, 신진호(2018), “국내 레저승마 참여자의 체험경제(4Es) 효과성 검증: 부스트랩 기법적용,” *한국자료분석학회*, 20(5), 2559-2568.
- 김곡미, 안지아(2019), “도시농업의 가치 확산을 위한 농업체험 사례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7(2), 144-150.
- 김민지(2020), “도시농업을 활용한 유희공간의 재발견: 밀워키를 사례로,” *LHI Journal*, 11(2), 59-68.
- 김소운, 김현희, 이영분, 임민경, 연제연, 류선형, 박혜신, 김맑은샘, 김완순(2019), “서울시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연구로 살펴본 한국 도시농업의 방향성,” *한국원예학회 학술발표요지*, 143-143.
- 김장현, 김영삼(2020), “패션산업에 나타난 체험마케팅의 유형 분류와 특성 분석 - Pine II & Gilmore의 체험경제 이론에 근거하여 -,” *복식연구*, 70(6), 105-119.
- 김정식, 한미영(2018), “도시농업 발전방향에 따른 도시농업전문가양성 교육과정 연구,” *Global Creative Leader*, 8(3), 71-90.
- 김혜란, 박울진, 소은주, 박병모(2018), “도시농업 운영의 인식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4(2), 72-80.
- 김혜지, 박상민, 신희철 (2016), “문화관광 축제의 체험요소가 브랜드이미지, 지각된 품질,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호텔관광연구*, 18(3), 227-244.
- 남지현, 홍아정(2019),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사회적 지지가 학습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과 상황적 흥미의 매개효과,” *역량개발학습연구*, 14(1), 139-166.
- 안서희, 정윤경(2019), “놀이 상황에서 어머니의 인지적 정서적 지지와 유아의 인지적 유연성 간의 관계 : 흥미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32(3), 99-119.
- 여옥현(2021), *도시농업을 위한 건물통합형 옥상온실의 동적 에너지 모델 개발 및 적용성 평가*,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유근준, 이혁진(2014), “체험경제(4Es)이론에 따른 축제방문객의 행동 의도와 체험관광 개발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관광레저연구*, 26(3), 263-281.
- 이동관(2018), *한국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의 효과 분석 및 제도 개선 연구: 정책 공급자와 수혜자 간의 인식 차이 관점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이동관, 조세환(2016),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도시농업 유형 선호도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44(6), 40-50.
- 이원석(2017), *도시농업의 다원적가치 평가와 활성화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임재호, 김유정, 배진현, 장선주(2020),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도시농업 참여수준에 미치는 영향 -인식조사 및 촉진방안 연구-,” *지역사회연구*, 28(4), 1-22.
- 임재희(2019), *복합리조트 이용객의 체험요소, 지각된 가치와 체험감정이 브랜드 자산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장동민(2017), “도시농업의 이론, 패러다임, 유형을 통한 공간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2), 501-513.
- 장서희(2019),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해석된 체험경제,” *관광학연구*, 43(8), 31-48.
- 장흥중(2021), *중·고령자의 도시농업 참여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연구*, 박사학위논문, 칼빈대학교 대학원.
- 조철호(2017), *SPSS/AMOS 활용 구조방정식모형 논문 통계분석*, 서울, 도서출판청람.
- 채영, 홍인경, 이상미, 정연빈(2019), “인문 프로그램을 적용한 도시텃밭 활동 만족도 조사,” *한국원예학회 학술발표요지*, 79.
- 최미순, 박동수, 최공집, 조혜영(2019), “체육계열 재학생이 지각하는 영어학습 동기 유형에 따른 영어학습 만족도 연구: 영어학습 흥미도, 참여도, 자신감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2), 835-857.
- 홍인경, 채영, 장윤아, 이상미, 정남수(2018), “도시민 소득수준에 따른 도시농업 효과 분석: 사회적 지속가능 효과, 부정적 효과, 경제적 지속가능 효과,” *Journal of People, Plants, Environment*, 21(6), 461-471.
- Chenarides, L., C. Grebitus, J. L. Lusk, and I. Printezis(2021), “Who Practices Urban Agriculture? An Empirical Analysis of Participation Before an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gribusiness*, 37(1), 142-159.
- Dunlap, R., J. Harmon and B. H. Camp(2020), “Cultivating Self-reliance : Participation in Urban Agriculture as Civil Leisure,” *Annals of Leisure Research*, 23(4), 530-543.
- Hauff, J. C. and J. Nilsson(2020), “The Influence of Gender on the Choice of Education: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est in Statistics,” *Journal of International Education in Business*, 13(1), 87-105.
- Hayes, A. H.(2022),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 A Regression-Based Approach*, NY : The Guilford Press.
- Hidi, S(2006), “Interest: A Unique Motivational Variable,” *Educational Research Review*, 1(2), 69-82.
- Högheim, S. and R. Reber(2017), “Interesting but Less Interested: Gender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Mathematics Interest,” *Scandinav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0(2), 178-182.
- Lai, I. K. W., I ,Y Liu and D. Lu(2021), “The Effects of Tourists’ Destination Culinary Experience on Electronic Word-of-mouth Generation Intention: The Experience Economy Theory,” *Asia Pacific Journal of Tourism Research*, 26(3), 231-244.
- Low, B. and A. Chang(2020), “Citizen Participation in Urban Agriculture :An Exploration of Various Community Approaches in Singapore,” *Journal of Environmental Studies*, 66, 124-151.
- Masumoto, K., M. Shiozaki and N. Taishi(2020), “The Impact of Age on Goal-framing for Health Messages: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est in Health and Emotion Regulation,”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38989>.

- Oktriana, P. M.(2019), "The Effect of Experiential Marketing and Psychological Pricing on Repurchase Intention of Customers in Store X," DOI 10.18551/rjoas.2019-08.2.
- Pine II, B. J. and J. H. Gilmore(1998), "Welcome to the Experience Economy," *Harvard Business Review*, 76(4), 97-105.
- Schiefele, U. and E. Schaffner(2015), "Teacher Interests, Mastery Goals, and Self-efficacy as Predictors of Instructional Practices and Student Motivatio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42, 159-171.
- Schmitt, B.(1999), *Experiential Marketing : How to Get Customers to Sense, Feel, Think, Act and Relate to Your Company and Brands*, NY : The Free Press.
- Song, H. J., C. K. Lee, J. A. Park, Y. H. Hwang and Y. Reisinger(2015), "The Influence of Tourist Experience on Perceived Value and Satisfaction with Temple Stays: The Experience Economy Theory,"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32(4), 401-415.
- Taylor, J. R(2014), *A Multiscalar, Interdisciplinary Study of the Social and Ecological Dynamics of Urban Agriculture in Chicago*,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 Tiraieyari, N. and S. E. Krauss(2018), "Predicting Youth Participation in Urban Agriculture in Malaysia: Insights from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the Functional Approach to Volunteer Motivation," *Agriculture and Human Values*, 35, 637-650.
- tom Dieck, M. C., T. Jung and P. A. Rauschnabel(2018), "Determining Visitor Engagement through Augmented Reality at Science Festivals: An Experience Economy Perspectiv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82, 44-53.
- Zhang, Q., X. Liu, Z. Li and Z. Tan(2021), "Multi-experiences in the Art Performance Tourism: Integrating Experience Economy Model with Flow Theory,"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38(5), 491-510.
- Zhao, W., Y. Song, Q. Zhao and R. Zhang (2019), "The Effect of Teacher Support on Primary School Students' Reading Engagement: The Mediating Role of Reading Interest and Chinese Academic Self-concept," *Educational Psychology*, 39(2), 236-253.

Factors Affecting Participation Intention of Urban Agriculture : Focusing on the Combination of Pine II & Gilmore and Schmitt's Experiential Economy Theory

Yoon, Joong-whan¹⁾
Chung, Byoung-gyu²⁾

Abstract

In the recent COVID-19 pandemic, urban agriculture is attracting attention as a healing concept. In 2020, 1,848,000 people participated in urban agriculture activities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mpirically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urban agriculture, which is rapidly increasing. The theoretical basis of this study is the experiential economy theory of Pine II and Gilmore and the experiential theory of Schmitt.

As independent variables, a total of five variables were set as the four elements of Pine II and Gilmore's experiential economy theory, namely, educational, entertainment, escapist, and aesthetic experiences, and relational experience reclassified using Schmitt's theory. Interest was set as a mediating variable between these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dependent variabl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urban agriculture. For empirical analysi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Based on the significant 314 samples of the collected data, the hypothesis was tested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First, as a result of testing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educational, entertainment, and escapist experiences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urban agriculture. The impact of the influence was in the order of entertainment experience, escapist experience, and educational experience. There was no significant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aesthetic experience, relational experience and intention to participate in urban agriculture.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of this study, interest introduced as a mediating variable was found to play a mediating role between entertainment, escapist, aesthetic experiences and intention to participate in urban agriculture.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est was not tested between educational, relational experiences and intention to participate in urban agriculture. This study approached urban agriculture participation from the concept of healing and analyzes the factors affecting participation in urban agriculture activities empirically based on a theoretical framework by combining and analyzing the representative Pine II and Gilmore theories and Schmitt theories. It had academic significance. In addition, it was meaningful to suggest that the healing concept approach is directional in relation to urban agriculture by revealing that entertainment and escapist experiences are important influencing variables in decision-making to participate in urban agriculture in practice.

Keyword: urban agriculture, participation intention, educational experience, entertainment experience, escapist experience, aesthetic experience, relational experience, interest

1)First Author, CEO of myMall24, whanflower@naver.com

2)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of Sungkyul University, gljoseph@sungkyul.ac.kr

저 자 소 개

- 윤중환(Yoon, Joong-whan)
- 마이물24(회원114) 대표, 도시농업관리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화훼장식기능사, 경영학박사, SNS판매관리사 1급, 소셜마케팅관리사 1급, 빅데이터 전문가 1급, 플라워샵경영마이스터 1급, 창직건설턴트 1급.
- 서울시 서초구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 공공기관 전문면접관
<관심분야> : 도시농업, 희귀식물, 반려식물, 온라인 마케팅, 화훼관련 IT솔루션 제작, 전자상거래

교 신 저 자 소 개

- 정병규(Chung, Byoung-gyu)
- 성결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경영학 박사, 경영지도사, 창업보육 전문매니저, 경영 빅데이터 분석사, 빅데이터 전문가 1급, SNS 마케팅전문가 1급, 진로 적성 상담사 1급, 진로 직업 상담사 1급, 창업상권 분석지도사 1급 등
- NIPA, IITP,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4차산업관련 평가위원
저서 : <메타버스를 타다, 2021>, <한방에 통과하는 논문 쓰기, 2021>, <2022 이기적 NCS 직업기초 능력 평가 입문서, 2022> 등
<관심분야> : ICT전략 및 마케팅, AR/VR 및 Metaverse, Bigdata, 4차산업 비즈니스 모델 등